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 壹枚四錢 壹個月八拾錢 參個月貳圓 ... 壹個年 ...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壹行壹圓卄錢 同 ... 指定料 ...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金東成
發行所 京城府 ... 朝鮮日報社

社說 日露基本條約調印 ─朝鮮人에게도重大問題─

一

東洋政局에 一大懸案이든 日露交涉은 昨日北京電에 依하면 二十日午後十一時에 그基本條約이 無事히 調印이 終了되엿다 한다 公私의 會合을 거듭하기 무릇七十八回, 時日을 虛費하기 前後四年에 亘하야 交涉, 決裂이 反覆되다가 昨年 急轉直下의 勢로 最近에 至하야 이와가티 調印의 機運이 促進된것은 여러가지 理由를 말할수 잇스나 大槪 日本側은 東漸政策의 積極的인 一端으로 또한 經濟的 窮道의 緩和策의 一端으로 要求가 切實한바이 잇고 日本側은 平凡한 國際通商으로 因生하는 利益을 企望치 아니함도 아니나 米國에서 排日氣勢가 昂騰된 以來 日本은 北사카ㅣ렌의 炭田油田을 占領치 안코는 米國의 東侵을 到底히 防備하기 不能할뿐아니라 米國系ㅣ쓰國務卿의 辭職後에 써라氏의 活動이 括目할바이잇서 親露政策이 漸漸 具體化하게 된 結果 日本은 또한 그機先을 失치 아니라는 計圖의 發露라고 볼수 잇는것이다

이와가튼 要求와 計圖아래에서 調印된 이 基本條約은 實로 東洋에 잇서서 政治上 重大한 意義를 가진 者일뿐더러 經濟界에도 莫大한 變動이 잇슬것이다

二

그런데 基本條約의 原則을 通觀하건데 大槪 豫想하든바에 別로히 大差가 업는듯하다 元來 最大의 難關이라고 이르든 利權問題가 거의 日本의 主張하는대로 容許된것은 瞭然한 바이오 習條約 즉 포쓰마쓰條約과 아울러 千九百○七年 漁業條約의 修訂等도 또한 日本의 要求가 達成된 바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最後外지 一大難關으로써 同交涉의 空氣를 振盪하든 宣傳問題에 至하야는 兩國이 서로 重大視하는 만콤 그만한 折衷的 協定이 된듯하다 다시 말하면 宣傳問題의 中心은 相對國의 政治組織을 破壞코자하는 言動, 企圖의 禁止와 第三인터내슌낼과의 關係를 明白히 條文上으로 表示하는 與否問題이엇섯다

그런데 이제 同條約을 보면 第四條에 示한바와 如히 다만 相對國의 政治組織의 破壞를 企圖하라는 一切의 言動을 禁止하는 同時에 前記의 目的으로 行하는 機關又는 團體의 存在를 不許한다 하엿다

그리고 第三인터내슌낼에 對하야는 明記한바이 업다 이問題는 從來의 兩國間에 嚴重主張한든바로 보아 截然히 折衷된바이 分明하다

三

우에 말한바와 가티 宣傳問題가 折衷案으로서 協定된것이 事實인데 勞農러시아는 世界革命의 理想을 把持하는 同時에 第三인터내슌낼에 對한 條文의 明記를 極力히 避함을 어덧스나 레닌나씀의 一大政綱인 弱少民族을 後援하야 强大한 帝國主義를 顚覆하다는 部分은 畢竟 讓步하게 된것이오 日本은 朝鮮이 러시아와 國境이 隣接되야 思想의 流入이 容易할뿐아니라 西伯利亞, 滿洲一帶에서 朝鮮人의 獨立乃至社會主義運動이 可히 輕蔑치 못할 將來를 가지고 잇는 形態이 ... 하야 더욱히 러시아의 援助外지 엇게된다면 그야말로 莫大한 禍根임을 看破하고 이點을 固執하고 要求하엿든바 거의 所期의 目的을 達하게 되엿스나 第三인터내슌낼에 至하여는 英國의 지노비에푸氏의 書簡問題의 殷鑑이 有함에 不拘하고 不得已 讓步하게 된것이다 그러면 兩國이 서로 이問題에 對하야 엇더한 不滿은 업지 아니하나 다른 問題가 圓滿히 解決된바에 이問題로써 이交涉을 犧牲치 아니하겟다는 誠心의 發露임이 掩치 못할 事實인가 한다

四

宣傳問題야 相對國間의 當面의 必要에 依하야 折衷되엿다 하려니와 折衷이 되엿다 하겟스나 朝鮮人의 處地에서 論하면 宣傳問題의 이와가튼 折衷的 解決을 보게 된것은 實로 朝鮮人 運命上에 重大한 結論이라 아니할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運命은 우리의 自由意思대로 決定하지 못하는 우리는 無言中에 憤慨과 不安에 소용도리 치는 胸膛에 鬱結될뿐이다

그러나 그러나 吾人은 不遠한 將來에 京城市中에 聳立한 俄國公館이 새主人을 마지하고 그露臺上에 赤旗ㅅ발이 가볍게 揚飄한 風에 나부낄것을 想像할때에 形言키 어려운 好奇와 感慨를 自制하기 不能하도다

樺太撤兵은 分離하야 따로議定書를交換 批准交換은二月末乎

(北京二十一日發) 北樺太軍撤兵에 關한것은 協約과 分離하야 議定書를 作製하야 兩全權間에 交換을 了하엿는데 此에 依하면 撤兵은 協約效力이 發生하는 同時에 北樺太東海岸으로부터 漸次西海岸에 及하야 此開部分的으로 撤兵하고 그러할때마다 行政權을 露國에 引渡하야 五月十五日에 完了하리라 한다 또 日露條約에 對한 批准書交換은 二月末日에 될것이며 或은 電報로써 雙方에 批准通告를 하야 二月十五日頃에 效力이 發生하게 될는지도 未知이라더라

條約外의聲明書 其處置는細目協定後에

(東京二十一日發) 二十日北京에서 調印을 見한 日露國交恢復基本條約의 全文以外에 聲明書의 形式으로 左의 二項이 成立되엿더라

得한 又 產出物의 輸出을 不許하고 產出物의 處置에 就하야는 後日 細目會議에서 決定함

尼港事件問題 尼港에 起한 事件에 對하야 勞農政府는 深甚한 遺憾의 意를 表함

軍艦을派하야 撤退準備를한다

(橫須賀電) 日露條約이 成立되는 同時에 薩哈嗹駐屯軍及其營造物을 撤廢하게 되야 橫須賀鎭守府는 特務艦大泊에게 準備命令을 發하는 同時에 近近軍艦日進을 薩哈嗹에 派遣하야 撤退準備를 식힐터이라더라

事業繼續問題 現在北樺太에서 日本企業團의 經營하는 油田炭坑은 本條約發行後八個月間 繼續함을 許한 그러나 右企業은 本契約締結前에 擴張할 事를 不 ...

爲先代理大使派遣 廣田歐米局長被命乎

(東京二十一日發) 日露國交가 恢復되는 同時에 莫斯科에 日本大使館을 置하고 아직 代理大使를 派遣하야 細目의 協定을 行할터인데 右代理大使에는 廣田歐米局長이 任命될 模樣이며 大使館, 領事館, 總領事館을 新設키 爲하야 政府는 約五十萬圓을 二月初에 追加豫算으로 議會에 提出할터이라더라

에 公表할터이오 又今後利權契約에 關한 細目은 漁業條約改訂及「포스머스」條約改訂 通商條約締結等의 議가 莫斯科에서 開할터인데 利權契約細目會議期日은 露國委員의 北樺太視察後가 될것임으로 早하야도 八月頃부터 開할듯하고 又此에 繼續하야 漁業條約改訂其他會議에 入하리라고 觀測되엿더라

細目協定은 八月頃乎

(東京二十一日發) 日露條約全文은 批准後兩國政府에서 同時 ...

基本條約名稱

(東京電) 外務省發表 二十日에 調印된 日露基本條約은 左와 如히 名稱하기로 決定하엿더라 『日露兩國間의 關係를 律하는 基本的法則을 包含한 條約』

아직도 幾多難關 加藤首相談

(東京電) 日露交涉이 成立되여 調印을 終한것은 今朝에 들엇는데 元來本交涉은 數年前부터 始作되여 今回로써 四回의 會商인바 現內閣成立後 更히 根本的新案의 要를 認하고 各種條件을 慎重審議하야 周到한 用意로써 交涉을 再開하엿다 그러나 兩國間에는 從來의 關係와 幾多의 難關이 잇서 一時는 交涉破裂의 危機에 瀕한 事도 有하엿스나 兩國代表의 努力에 依하야 今回 無事히 調印을 終하엿슴은 兩國交를 爲하야 慶賀할것은 勿論 日本의 面目利益을 損치 안코 國交回復을 得하엿슴은 從來世界文明으로부터 遮斷되여 잇든 露國을 漸次列國의 交際場裡에 誘導하게 되야서 喜慶할 일이다

蒙古共和國의 基礎憲法制定

現在의 蒙古가 全然中國의 支配下에 在함은 勿論이나 最近의 形勢에 依하면 소비에트 露國의 一共和國으로 하라는 傾向이 隱然이 보이는 蒙古共和國憲法及軍事基礎法規를 制定하야 蒙古는 獨立한 人民共和國이오 全權은 蒙古勞務人民에게 屬한 者를 主眼으로 하고 土地富源의 共有, 國際協約及債務規約及外債의 破棄, 無產者의 武裝, 一般軍事敎育의 實施, 革命軍編成, 宗敎를 國家에서 分離케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居住의 自由, 敎育의 國家負擔, 大公貴族等의 稱號廢止, 活佛의 所有權剝奪等 社會組織을 根本으로 顚覆할것을 規定하엿더라

奉露協約은北京서 奉天側에 手腕家가업다

(奉天二十一日發) 日露協約調印에 就하야 奉天中國側은 平靜을 裝하는 中이나 內心狼狽하야 奉露條約의 協約의 細目協定을 焦慮하는 中이나 元來奉天側에는 가라한과 談判할만한 人物이 無한 故로 北京外交部로부터 手腕家를 奉天에 派遣하야 張作霖과 協議한 後 右奉露交涉은 北京의 露中正式會議中에 包含하야 協議할터이라는데 此를 協議하기 爲하야 昨日人을 北京에 派遣하엿더라

東支鐵道에 舊法適用禁止

從來東支鐵道管理局其他의 常課에서는 露帝政時國法律이 適用되든것을 今回에 絶對로 禁止하고 中華共和國의 現行法律及此에 抵觸되지 안는 當該地方의 慣例를 適用할 旨로 宣言하엿더라

訂正 二十二日發行(二十一日夕刊)『調印된日露條約大要』中第二項第四에 樺太油田의 地域中 ... 谷側에 就하야 六十%라함은 五十%이오 又同第七에 利權에 對한 報酬金中 炭田의 坑區는 ...%는 五乃至八%의 誤이기 訂正함

盧氏浙江侵入計劃

(上海二十一日發電) 鎭江丹陽을 陷落한 南京軍은 乘勝하야 追擊치도 안코 二十日中에는 그러케 前進치도 아니하엿는데 聯合軍은 無錫으로부터 江陰一帶의 防備에 全力을 盡하는 中이나 士氣가 不振하야 多數는 蘇州로 退却한 模樣이다 一說에는 盧永祥氏는 强力인 奉天軍을 宜興方面으로 輸送하야 浙江侵入을 企圖中이라 한다 此에 對한 孫傳芳軍은 應戰準備中이며 至今形勢로는 南軍의 兵力은 聯合軍一萬五六千 南京軍三萬이라 稱하나 齊燮元을 擁護하는 外字新聞은 孫傳芳은 白寶山等과 併力하야 馬邑에 六萬兵을 左右할수 잇다고 樂觀하는 中이다 聯合軍의 敗兵은 鎭江으로부터 退却하는 途中에 常州等地에서 掠奪을 恣行하엿는데 昨年의 江蘇戰爭時에 盧永祥이 掠奪을 嚴禁한것에 對照하면 齊燮元軍의 軍規는 紊亂하더라

學校費查定終了 今日評議員茶話會에回付

京城學校費十四年度豫算查定은 二十日에 京城府廳會議室에서 行하야 二十一日午前二時頃에 겨우 終了되엿슴으로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評議員茶話會를 開催하고 協贊을 得할터인데 明年度豫算으로서 가장 注目할것은 就學難緩和策으로 若干部數校의 利害, 夜學校開設의 件, 年齡에 達하고도 入學치 못한 者에 對한 措置, 來年度(四月)에 在한 兒童收容能力의 增進如何等인바 兒童收容現在數는 十八校百八十四學級이오 來年度는 새로 二十學級乃至二十二學級의 增加를 圖할 方針下에 一學級에 七十人을 收容한다하면 約一千五百人을 새로 收容하라는 듯한데 勿論經費其他關係로 아즉 未就學者가 多數인 境遇에 應急策으로 二部敎授를 開始할 意思는 充分히 잇스나 즉 茶話會席上에서는 此의 方策에 就하야는 相當히 論議되리라고 推測되더라

漢銀總會終了

漢城銀行第三十九回定時株主總會는 既報하얏든바와 如히 二十一日午後一時부터 同行에 開催하고 各議案은 異議가 無히 可決하고 昨年에 死亡한 監査役今村三郎氏에 對한 弔慰金決附의 件과 辭任한 取締役趙鎭泰氏에 對한 慰勞金의 件은 重役에게 一任키로 하고 尙히 監査役後任은 次期總會에서 選出하겟고 趙鎭泰氏後任은 經費關係로 選出치 안키로 可決하고 來二十四日에 滿期될 監査役李海昌氏는 留任키로 決定하얏더라

客臘爲替受拂 十四萬圓日本送金超過

全朝鮮各郵便局所의 十二月中의 爲替取扱은 振出二十八萬四千八百三十二口 千百萬八千三百五十圓 拂渡는 二十五萬五千六百五十三口 一千八十六萬六百十四圓으로 受拂差額十四萬二千餘圓은 日本送金超過로 보겟더라

十五日現在 預金概況

郵便爲替貯金管理所調查에 依한 一月十五日現在의 貯金概況은 郵便貯金은 人員一、六六三、八七三 金額二一、三六九、○九一圓이오 振替貯金은 人員一三、一六七 金額二、六七六、八七三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郵便은 人員에서 一六厘減, 金額八厘增 振替는 人員六步六厘增, 金額八步一厘減을 示하얏더라

全州新興校主催로 無資格敎員講習 三個月期限으로

全州新興學校主催로 同校內에서 全北各地方에 散在한 私立學校敎員中 無資格者를 爲하야 講習會를 開한다는데 講習課目은 三種이오 講師는 同校先生이며 期日은 去十日부터 來四月十四日外지며 講習料는 無料라는데 其經過가 甚히 良好하며 目下各地에서 講習生이 雲集하는 中이라더라(全州)

勞働組合이 賭博者를懲罰

金山郡五山面南田里의 一般勞働階級에서는 數三年前부터 同洞中 ... 와 가튼 形式으로 ... 具體的으로 勞働組合을 組織하야 生產獎勵와 冗費節約 風俗改良等을 主旨로 하고 基本金을 거둔것이 百餘圓에 達한다하며 더욱이 貧民으로 冬節에 副業을 經營하고저 하나 資金이 업서서 經營치 못하는 組合員에게는 資金或은 原料를 貸付하며 ... 賭博한 者에게 罰金을 徵收하야 組合員의 罰金은 同組合基本에 編入하고 組合員以外人에게 徵收한 罰金은 同里私立信興學校의 經費에 編入하기로 約定하고 同組合의 任員은 左와 如하더라

◇任員 ▲組合長 金容鉉 ▲監事 安炳璜、金容洙、金然周 ▲評議員 黃戴政、馬東完、韓命斗、崔琯鉉、徐千洙、徐相鶴、陳斗永、車錫國、崔鍾讓(光陽)

友信團의 救濟劇初回는

昨正月一日光州에서 木浦竹洞에서는 飢餓에 우는 同胞와 光州에 잇는 문둥病院을 爲하야 조금이라도 同情하기로 目的하고 素人劇團友信團을 組織하고 準備에 紛忙中이라함은 已報한바이어니와 同團에서는 場所形便에 依하야 第一回興行을 光州에 가서 陰正月一日부터 三日外지 하고 二回는 木浦에서 할 豫定이라더라(木浦)

昨年中木浦의 吸煙八十萬圓

六十萬圓은 朝鮮人 木浦의 昨年中煙草消費額은 八十八萬圓인데 此를 全人口四萬名에 分配하면 一人分에 對하야 一個年에 二十二圓, 一個月에 一圓八十三錢, 一日에 六錢三厘式이 나된다는바 그中에 日本人은 二十萬圓에 不過하고 其外六十八萬圓은 全部朝鮮人의 消費額이라더라

津上金組創立

全南光陽郡津上金融組合은 同郡津上面津月面多鴨面等三個面의 地方有志가 大正六年부터 着手하야 昨年十二月二十四日에 設立許可를 得하야 가지고 去十七日午前十二時에 津上面蟾居里公立普通學校에서 會員數百名이 雲集하야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는데 臨時議長金容雲氏의 開會辭와 趣旨說明을 비롯하야 理事徐廷完氏의 經過報告가 잇슨 後 決議事項에 就하야 設立登承認의 件과 全南金組聯合會加入의 件을 一致可決하고 任員選擧는 左와 如히 하며 來賓祝辭로 閉會하고 餘興으로 夜話會가 다시 열니여 蟾居里에 市場設立과 郵便所設立을 運動하기로 妥協하고 來十九日에 또 評議員會가 잇스리라더라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龍源高利貸金業者諸君에게

◇鐘武市에 모여드는 龍源高利貸金業者諸君의 ... 龍源은 咸南에도 有數한 富村이니 가 錦衣玉食에 배스속이 便하게 먹고 許多한 事業가운데 돈을 가지고 何等할일이 업서서 食貪無道한 高利로 農村貧民의 膏血을 빨어먹으려 하는가 嗚呼라 經濟界의 恐慌이 極度에 達하야 우리의 生活前路가 慘憺하여 감은 새삼스러이 말치 아니하여도 當해보는바이 아닌가

◇諸君이여 一地方으로 말하면 其地方貧民이 死活에 驅하엿슬때 ... 其地方有產者일것은 必然한 情勢가 아닌가 그러면 君等은 現場에 饑死를 不免하야 窮境에 빠진 貧民이 나날이 점점 느러가는것을 어떠하게 생각하는가? 君等은 이 高利貸金이 唯一한 救濟方法으로 知하는가?

◇洪原郡鐘武市는 咸南의 屈指하는 魚穀市場인바 近頃은 魚穀市場이 ... 化하야 高利貸金業者市場이 되엇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市場所在地一百三十餘戶에 高利貸金業者總數가 八十七名인바 其中五十九名은 卽龍源의 所謂有產者이란 惡魔니다 그러면 君等의 利息이버진 貧民이 나날이 늘어가고 느러갈사록 高利業者인 諸君의 利息이버러지가 繁殖될것은 알치 안하여도 뻔한 機會로 아는것이 아닌가?

◇其中에 모종 사돈, 벗人돈, 두권돈 「장변돈」은 잠으로 ... 命外지 危殆하게 되든 一例를 들면 高利貸金業者의 ... 되는 龍源金某는 村民이 自己에게 빗을 쓴것 ... 하고 두장이 넘도록 빗을 아니 갑고 其間損害를 내리고 强迫을 하며 만약 빗을 쓰면 어시두서운 高利를 붓쳐 元金四圓八十錢 빗을 준지 몃해만에 時價八十餘圓되는 家屋을 빼아스려고 하엿다 함으로 사람되고 차마 못할 貪婪無道한 짓을 하여 모흔 돈을 君等이 무엇에 쓰려 하는가

◇불상한 것은 貧者뿐이다 惡魔의 高利貸金業者여 諸君의 安樂生活은 곳 諸君의 同族인 멀지도 아닌 이웃에서 飢寒을 부르짓고 잇는 貧民의 膏汗의 結晶이다 돈만 알고 사람 모르는 高利貸金業者諸君이여 돈이란것이 貴한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돈 그것이 貴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서 人生의 目的을 이루고 그理想을 實現하는 外에 딴곳으로 貴한 다 하는 것이니 高利로 사람의 피를 빨어내지 말고 녹은 利子로 貧民을 救濟하여 주는것이 어떠하냐? 悔悟하여라 (鐘武 漢生)

褒氏親睦總會

木浦에 잇는 褒氏親睦會에서는 來一月二十五日午前九時에 大正町褒學臣家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한다고(木浦)

南田敎會復興延期

全北益山郡五山面南田里耶蘇敎會에서는 昨年十一月頃에 ... 復興會를 開催하기로 하엿다 함은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事情으로 不得已延期하게 되엿다는바 來二月二日부터 一週日 開催한다는바 一般敎人은 勿論이요 多數敎外人을 大歡迎한다더라(裡里)

金文弼劇團을苦待

民衆劇團一行은 來陰正月初旬에 부터 七日間을 木浦常盤座에서 興行할터인바 當地人士는 金文弼氏의 天才的技術을 보고자 熱狂的으로 企待한다더라(木浦)

釜山公園을計劃

草梁洞滿鐵社宅의 遺址 釜山草梁鐵道病院압헤 잇는 滿鐵社宅의 遺址는 公園으로 만들고자 同府에서 經營中인데 그計劃이 漸漸完成되야 滿鐵病院寄附金一千圓으로써 基礎를 삼아 千四百圓의 範圍內에서 今年以內로 完成하기로 決定되얏다더라(釜山)

舊歲末에臨한 馬山魚市狀況 靑魚市勢의變動과 一般商人의一恐慌

近日馬山魚市場은 迎日灣靑魚晩出의 影響으로 例年에 比하면 比較的閑散한 現象을 呈하얏다 그럼으로 一般商人側에서는 매우 焦燥한 가운데에 잇든 中 ... 浦項靑魚가 連續來到하야 其時價는 平定치 못하야 時時刻刻으로 變動되여 一般仲商側에는 莫大한 損害와 驚恐心을 喚起케 하며 本年靑魚時價는 數日來에 左와 如한 懸隔한 差異를 示하엿다더라

▲十二月二日海參威靑魚每日一百八十圓下一百三十圓 同六日 ... 十五日海參威靑魚每日一百五十圓 同十九日海參威靑魚每日二百十圓 同二十二日海參威靑魚每日二百六十五圓

▲十二月二十三日浦項靑魚每日午前三百五十圓午後三百三十圓 同二十四日浦項靑魚每日午前二百十圓午後二百四十圓 同二十五日浦項靑魚每日午前二百圓午後一百七十圓 同二十六日浦項靑魚每日午前一百五圓

本市場委托品의 販賣權을 가진 金漢柔氏의 豫想에 依하면 以後浦項에서 靑魚가 多出하면 多少間時價의 ... 것스나 萬一浦項에서 到着되지 아니하면도 더 高騰하겟다더라(馬山)

釜山草梁道路工事 四萬餘圓으로日人에落札

釜山草梁洞以北 島洞, 佐川洞一帶市區改定의 街路延長一千二百四十間의 舖裝費四萬二千三百圓으로 該地日本人倉原鶴太郞에게 落札되어 四五日前부터 起工하얏는데 竣工期는 今年八月末이라더라(釜山)

馬山囚人數 昨年十二月

末現在馬山刑務所의 囚人數를 示하면 刑事被告로 在監者는 朝鮮人男女七名뿐이오 受刑者는 朝鮮人男九三, 女一八, 日本人男一四, 女二, 幼兒携帶日女一名이요 勞役場留置者는 朝鮮人男五名인바 合計一四○名中 懲役年數別은 三年未滿이 三五요 五年未滿이 三一이요 一年未滿이 二六인데 犯罪別은 竊盜에는 朝鮮人男四五, 女一, 日人男七, 女一이요 强盜에는 朝鮮人男一九, 日人男一이요 放火犯에는 朝鮮人男一, 女三, 日人男二요 文書僞造犯에는 朝鮮人男一, 日人男一이요 印章僞造犯에는 朝鮮人男一이요 賭博及詐欺罪에는 朝鮮人男一이요 僞證罪에는 朝鮮人男二요 殺人罪에는 朝鮮人女九, 日人男一인바 初犯者가 六七이요 再犯者가 六五로 總數가 百四十名인데 再昨年同期에 比較하면 八十一名이 減少하얏다더라(馬山)

社會思想 ═研究會═ 海州에서組織

階級意識에 覺醒한 海州에 잇는 數十靑年들이 去十六日下午二時에 海州南本町海州靑年會館에 集合하야 社會思想研究會를 組織하얏다는데 其主張하는바와 및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主張

一、우리는 大衆本位의 社會를 建設키 爲하야 其手段方法을 講究하지 안으면 안될것이다

一、우리는 아즉 具備한 우리戰線이 四分五裂하야 骨肉相爭함을 防禦키 爲하는 同時에 우리自體부터 中立的態度로 研究치 안흐면 안될것이다

◇委員

委員代表 李承範 庶務部 呂德欽 金德喜 敎養部 金漱洙 李仁秀 編輯部 崔相稷 鄭重(海州)

新義州에 臨時種痘施行

新義州府內에는 昨年十月二十六日에 府內梅枝町에 痘瘡患者가 發生한 以來 今日外지 累計十二名의 患者를 算하얏슴으로 道衛生課에서는 여러가지로 豫防에 全力을 注하든 中 더욱 病者의 蔓延을 豫防키 爲하야 來二十六七日頃에 臨時種痘를 施行한다더라(新義州)

客月義州金組業績

義州金融組合의 十二月末現在業務成績을 보건데 預金이 一三四、一七八圓○四○ 貸付金이 一二六、一七七圓八○이요 前月末現在預金殘額一三七、四三二圓九八○에 比하면 三、二五四圓九四○이 減하얏스며 貸付金前月末殘額一二八、一五四圓六五○에 比하면 一、四三七圓四七○이 減하얏다하며 前年同期預金殘額一二七、四四八圓六五○에 比하면 六、七二九圓三九○이 增加하얏고 貸付金殘額一二一、○六八圓三五○에 比하면 五、一○九圓 ... 이 增加하엿다는데 其內譯을 보면 (預金) 定期預金一三、○八○ 當座預金八五、六五七圓七○ 別段預金二、一七○ 貯蓄預金 ... ○據置預金一三、九二四圓三二 ○職員身元保證金二四一、一圓九八○ 積立預金九三四圓九三○ (計一三四、一七八圓○四○) 保證貸付金六七、一七六圓○四○ 不動產擔保貸付金 ... 定期貸付金一一、九三○圓○○○ 當座貸越五、三三二圓四三○ 手形割引四、二八○圓○○○ (計一二六、一七七圓八○)이라더라(義州)

昨年中平南에 染病死亡二百 腸窒扶斯가最多

昨年中平安南道管內에서 發生한 傳染病數는 如左하다더라

病名	發生	死亡
赤痢	九六	二七
腸窒扶斯	四○三	六一
파라지부스	三七	二
지프데리아	九六	三
發疹지부스	四	一
嗜眠性腦炎	三	一
猩紅熱	二六	一
痘瘡	二	一

(平壤)

新灣靑年 綱領새로制定

新社會建設을目標로 去十九日午後九時에 新灣靑年會執行委員會를 同事務所內에서 開催하고 여러가지 事務進行方針을 討議하고 左와 如히 綱領을 制定한 後 이에 依하야 規則도 改正하고 閉會하엿다더라

◇綱領 本會는 大衆本位인 新社會建設을 目標로 하야 그役軍의 訓練과 養成을 期圖함(新義州)

金醫師의施善

平北義州郡義州面東部洞(東亞日報分局前) 芝山醫院醫師金敎鋼氏는 昨年十月에 前記場所에 醫院을 設置하고 當地無產者들을 爲하야 無料로 治療하야 特히 報讀者를 爲하야 一月一日부터 三月三十一日外지 三箇月동안은 藥價其他全部를 半額으로 하야준다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義州)

平壤孤兒院에 同情! 熱愛! 同情金이月增

平壤孤兒院에 社會一般의 同情金이 이運至한다 함은 本報에 累次報道하엿거니와 日前에 또 左記諸氏로부터 同情金이 잇섯다더라

黃仁永五十圓▲西門外敎會三圓▲外國宣敎師兒童六十八圓十五錢▲尹相浩二十圓(平壤)

平南苹果의 輸出이逐年增加

大正九年以來平南道의 苹果生產及輸出量은 如左하야 逐年增加하는바 昨年中에는 露領及中國方面에 新販路가 擴張되엿슴으로 今後로는 一層活況을 呈하리라더라

◇生產額

大正	九年	三六七、九九六貫
同	十年	三六六、六七七
同	十一年	三七八、五○三
同	十二年	六四九、四○○
同	十三年	七七○、○○○

◇輸移出額

大正	九年	八○、○○○貫
同	十年	七五、○○○
同	十一年	九八、○○○
同	十二年	一○七、○○○
同	十三年	二三○、○○○

(平壤)

沙里院美監理敎 幼稚園을期成

京義線沙里院宗敎界의 가장 期間을 잘 가진 美監理敎에서는 漸漸進步되는 活動으로 敎會는 漸漸進步되던 中 今般安昌鎬牧師가 새로히 赴任한 後로 一層革新이 되는 同時에 新進靑年도 만히 잇게 되엿스며 또한 沙里院의 唯一한 幼稚園을 設立하라고 昨十八日에는 幼稚園期成會準備委員으로 安昌鎬、宋基成、郭炳奎、李奉俊、金昌國五氏를 選定하엿다더라(沙里院)

成川敎會查經準備

成川邑耶蘇敎會에서는 來陰正月十一日부터 冬期查經會를 開하리라는데 講師는 宣敎師許一牧師 張雲景長老이며 目下準備에 奔忙中이더라(成川)

鄭醫生의施善 ═平北

鐵山郡邑內面西部洞昌濟醫院醫生鄭昌權氏는 多年間濟生事業에 努力하야 名聲이 놉든 中 去十日頃에 同郡邑內東部에 사는 吳某의 孫子가 病에 걸리여 매우 苦痛함을 듯고 出張하야 診察한 後 그집이 極히 貧窮함을 同情하야 藥價를 全部 밧지 아니하얏슴으로 一般이 稱頌한다더라(鐵山)

沙里院驛乘降客 京義

京義線沙里院驛은 京義鐵道에 屈指하는 驛인바 昨年九月부터 十二月外지 四個月間 乘客이 六萬六千九百七十二人이오 降客이 八萬一百七十七人이오 入場者가 四千七百十一人인데 月別로 보는 左와 如하다더라

月別	乘客	降客	入場
九月	一四、○○○	一六、○○○	一、○二三
十月	一六、七八二	二○、三七五	一、一六六
十一月	一八、二五二	二一、五三六	一、三○六
十二月	一七、九三五	二二、二六○	一、二二五

(沙里院)

成川人事相議 上半期보다減少

成川警察署의 昨年下半期의 人事相談의 事件統計를 보면 大槪 如左한데 上半期에 比하면 受付에 三十件이 減少되엿더라

	受付	解決
精神上問題	四八	四五
就業上問題	二	二
雇傭上問題	八	八
保護上問題	一八三	一七三
其他	二	二
計	二四三	二三○

(成川)

西門敎會聖殿奉獻

平壤府西門外耶蘇敎會에서는 新築한바 來陰正月二日에 聖殿奉獻式을 同禮拜堂內에서 擧行한다더라(平壤)

寧邊金組評議會

平南寧邊金融組合에서는 本月十七日下午一時에 組合長車國輔氏의 司會下에 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 後 同三時에 閉會하엿다더라

一、組合員加入의 件

一、弔慰金寄贈의 件

(가)組合員의 父母又는 配偶者死亡時는 一圓

(나)組合役員의 父母又는 配偶者死亡時는 三圓

(다)組合員死亡時는 二圓

(라)組合役員死亡時는 五圓

一、各洞에 組合員中으로 組長을 選任할 件

一、金融聯合會로부터 低利資金五萬圓을 借入할 件(寧邊)

新義州驛乘降客

新義州驛의 客月中乘降客數는 如左하다더라

◇乘客의分

列車番號	人員	一日平均
	人	人
五○一	二、六三七	八五、○
五○三	一、三五○	四三、三
五○五	一、一九六	三八、五
五○七	八○五	二五、六
五○九	七九六	二五、○
五一一	四七九	一五、七
五一三	三二四	一○、四
五一五	三三一	一○、六
五一七	一二八	四、二
計	八、○四六	二五九、五

◇降客의分

列車番號	人員	一日平均
	人	人
五○○	三七九	一二、二
五○二	四○一	一三、○
五○四	九五三	三○、七
五○六	一、五五七	五○、二
五○八	五七六	一八、六
五一○	二、一一二	六八、四
五一二	六三一	二○、三
五一四	三五二	一一、三
五一六	四四三	一四、九
計	七、四一四	二三九、一

(新義州)

仁川의戶口 昨年末現在 外國人이激增

仁川警察署調查에 依한 昨年末現在仁川府戶口는 一萬八十七戶에 男二萬二千六百四十二人 女一萬九千七百六人 合計四萬二千三百四十八人인데 이것을 再昨年末現在에 比하면 戶數에 四百四十戶 人口에 男八百四十五人 女五百七十一人 合計一千四百十六人이 增加한바 戶口의 國籍別은 如左하다

▲朝鮮人 六千九百八十八戶 男一萬五千三百十六人 女一萬三千七百六十一人 合計二萬九千七十七人 再昨年比 六十一戶에 男五百十二人 女四百六十二人 合計九百七十四人增加

▲日本人 二千二百六十一戶 男五千七百八十八人 女五千五百五十九人 合計一萬一千三百四十七人 再昨年比 ...

▲外國人 三百三十八戶 男一千五百五十八人 女三百八十六人 計一千九百四十四人 再昨年比 ... 合計三百三十三人增加인데 總數에 比較하면 外國人이 比較的多數增加인바 그大體가 中國勞働者의 增加이라더라(仁川)

江華靑年도 年齡制限決議

江華中央靑年會委員會를 一月十四日午後七時에 同會館內에서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一、會員年齡制限을 三十歲以內로 할것

一、中學期成會準備會(前商業會議所에서 讓渡된 債金)은 各債務者에게 三回外지 勸告하야 辨償치 안니할時는 法律의 行爲를 取할것

一、少年少女懸賞討論會를 開催할것(江華)

雄基港에 繁榮會

住民이總督府에陳情 雄基港은 近年以來로 顯著히 發展되야 港頭에 貨物이 恒常輻湊하는데 다만 淸津、雄基間의 連絡船이 完全하지 못하야 元山淸津間에는 郵便物等이 僅히 一晝夜이면 到着되는것이 淸津雄基間은 ... 郵便物等이 三日乃至四日을 遲延됨으로 一般의 損害가 만흔 中 雄基繁榮會長 ... 七氏는 淸津雄基間連絡船에 關한 陳情書를 携하고 지난十七日에 元山을 經過하야 京城에 올나와서 總督府當局에 陳情을 提出하얏다는데 이問題만 解決되면 雄基의 發展은 더욱 顯著하리라더라(雄基)

昨今元山 大豆時勢又騰 出廻는閑散

元山米豆市場에는 米價가 不振함에 反하야 大豆는 依然히 高價를 呼하는바 昨今은 月初보다도 三十錢의 騰勢를 示하야 特等二十五圓六十錢, 一等二十二圓四十錢, 二等二十二圓十錢, 三等二十一圓六十錢, 四等二十圓六十錢으로 振初二十一圓의 豫想을 破棄하엿스나 供給者의 出廻는 極히 閑散하다더라(元山)

客月中 淸津魚市狀況 前年보다水揚高增加

淸津魚市場의 客月中水揚高는 七萬八千百八十六圓六十錢인바 此를 再昨年同期의 七萬百五十九圓三十錢에 比較하면 八千二十一圓三十錢이 增加하얏고 또 昨年中의 水揚總額三十六萬七千九百二十九圓九十七錢으로 再昨年中總額三十九萬六千四百五十二圓七十九錢에 比하면 一萬一千四百九十七圓八十錢이 減少되얏다더라(淸津)

黃州市場穀價

去二十六日(舊曆)黃州市場穀價는 如左하다더라

▲白米一斗三圓六十錢 ▲小米一斗二圓五十錢 ▲大豆一斗一圓九十錢 ▲小豆一斗二圓七十五錢 ▲大麥一斗二圓二十錢 ▲小麥一斗二圓 ▲高粱一斗一圓三十錢 ▲木牟一斗一圓五十四錢 ▲綠豆一斗二圓七十錢 ▲綿花一斤二十五錢 ▲木炭一石八十錢(黃州)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一月廿一日

後場小往來

今前場阪地止價三十九圓十九錢의 低報와 共히 三十五圓四十八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阪地初付三十九圓十四錢인 五丁反落을 據하고 卅五圓四十三錢에 場을 始하엿스나 阪地三節共히 十八錢으로 五節二十九錢의 高價를 報함으로 當地亦牽制되야 四十四五錢에서 保合하다가 六節五十三錢으로 結局阪地止價二十九錢의 報를 受하고 五十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十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百七十丁이더라

大阪狀況 二十一日後場

今後場阪地場況은 兵庫及京都筋又는 地場「마바라」의 買押으로 地場賣를 不拘하고 三十九圓十四錢 引五丁低價로 場을 始한 後 吉村三木筋의 買迎으로 十八錢外지 返戾할 際에 各地後高를 報함으로 二十三錢外지 引締한 後 手詰賣買로 更히 二十九錢外지 又復反騰하야 結局亦二十九錢으로 强硬히 場을 止하엿다고

◇各地止價◇ 二十一日後場

	止	前止比較
大阪	三九、二九	九低
東京	四○、一九	六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九圓二十一錢三厘	
仁川	三十五圓四十一錢三厘	

兵庫	三八、九六	二二低
下關	三八、七四	四高
桑名	三七、七八	一九高
名古屋	三七、六四	三七低
金澤	三八、二五	五低
熊本	三八、六二	二二低
仁川	三五、五○	二○低

◇各限俵合◇ 二十日後場

	賣方	買方
當限(計六、五○○石)	[illegible]五、五○○石	[illegible]六、二○○石
	[illegible]五○○石	[illegible]一、○○○石
	[illegible]一、○○○石	[illegible]一、○○○石
中限(計二○、六○○石)	[illegible]八、二○○石	[illegible]一七、○○○石
	[illegible]三、○○○石	[illegible]六、三○○石
	[illegible]一、○○○石	[illegible]三、○○○石
	[illegible]二、○○○石	[illegible]三、○○○石
	[illegible]二、○○○石	[illegible]一、○○○石
先限(計二七、二○○石)	[illegible]四、○○○石	[illegible]三、二○○石
	[illegible]八、○○○石	[illegible]八、九○○石
	[illegible]三、七○○石	[illegible]四、三○○石
	[illegible]九、八○○石	[illegible]六、○○○石
	[illegible]一、三○○石	[illegible]三、○○○石
	[illegible]二、○○○石	[illegible]一、○○○石
	[illegible]七○○石	
	[illegible]二、○○○石	

레닌會見印象記
그의逝去一週年에
金丹冶 (一)

그날은 또다시도라왓다 일월이십일일! 『콤로』 공화국(共和國)의아버지인 『니콜라이 레닌』무산자해방운동(無產者解放運動)에스승인『레닌』국제혁명군(國際革命軍)의장수인 『레닌』 그의인류역사상에 위대한새긔록의 주인공(主人公)인『레닌』 그의도라간 만일주년긔념일(第一週年紀念日)은도라왓다아! 얼마나 의미한죽엄이며 비통한죽엄이냐? 전세계의인류는누구나다이하로를긔념할줄로나는안다 그러나오즉이날슬픔으로긔념하는이와깃븜으로긔념하는그두가지의사람이 나뉘일뿐일것이다

나는일년전그의죽엄과오날뒤거츠른범판의한용흠속에서살아커가는 그의용명어린흘을감고생각하여 불배에붉과수삼년밧게되지안는 머지아니한옛날에 생기(生氣)가넘치고로쇠(老衰)던그때의 그의그림자가 뚜렷하게눈압헤지내간다이에인생의허무와세력의변천을한하는뜻업는눈물을 더욱더 그를회견(會見)하던그때의 인상(印象)을 새롭게하는동시에한줄기의눈물을 흘니게된다 따라서이에그를 추억(追憶)하는붓대를잡앗다 그러나엇더케하여야만이것이 넉넉히이험로란관(險路難關)을지나갈수가잇슬가 하는것이 한문데이다 그래서나는그때의그것을오직활동사진(活動寫眞)처럼비추어주던 그대로축음긔(蓄音機)모양으로 틀니든그대로 긔계뎍(機械的)으로비추어주고소리내고저한다

奇異한因緣
내가그를맛나던 날이이년후에그 의별세하던날

일천구백이십이년 일월 이십일일오후 륙시경이엿다 불야성(不夜城)을이룬듯고 나는 뎐등(電燈)은거문장막속에풀긴적색의수부(赤色首府)『모스크바』(莫斯科)정들은수직하드라고쏫밧가튼 눈을반작이면서 벌려섯던 그때이엿다 그때는 오날로부터 만삼개년전(滿三個年前)이며 『레닌』씨의운명(殞命)하던그때로부터 만이개년전그날 그때이엿다 우연치아니한 그와의회견은공교하게도 바로그가 도라가던그날그시간이엿다 실로 거짓말갓가도한 참말인 이사실은아는이라야 알것이다 내가그를맛난후 만이개년되는 그날그시간 즉일천구백 이십사년일월 이십일일 오후여섯시반에 그는별세를하엿다 이러케맛나던 그시간이곳죽는 그시간이됨은 참으로뜻하지아니한인연이오 생각할사록괴이한사실이다

그때나와

『콤으로서아』(赤露)의 영을밟기는일천구백이십일년 십일월일일이엿섯다 그리하야『치따』(智多)와『이르쿠스크』(伊市)를것처아세아(亞細亞)와구라파(歐羅巴)의디경인『우랄산』봉을통과하기는 그이듬해즉 일천구백이십이년 일월십일경이오 바로 『모쓰크바』길거리에발길을옴겨논것은 그달십오일이엿다 뎡거장에서 즉행으로『쓰리치·돔·쓰비엣트』(譯하면議會政府第三旅館)로가서 류하게되엿는데

그때나와 동행한여러사람은조선, 중국(中國),일본(日本)몽고(蒙古)및남양(南洋)『자바』사람들뻐수십명이엿섯다 무스며 무엇을하엿다는것은 혹세인의 긔억에남아잇슬줄로안다 그러나 그긔억을 새롭게하기위하야 이에간단한 내용을다시소개하여볼가한다 그때 그들의모힘은곳데일차 원동민족대회(第一次遠東民族大會)라는 것이엿다

赤露行의動機
데일차원동민족 대회가열닌때에 여러민족과가티

이에내가 그를맛나게되던 그동긔(動機)와경로(經路)를간단히이야기하고 이어서 맛나던그때의그것을 대강쓰려한다 내가

市內各團體 『레닌』忌日紀念
무산자혁명의수령이든 『레닌』이죽은지일주년

작이십일일은 세계무산혁명의수령이서거한지일주년 제되는 날이라 시내각사상단테에서는 각각이날을장엄히긔념하엿는데그개황은아래와가탓더라

火曜會默念
그것외지경찰이경계

시내락원동(樂園洞)화요회(火曜會)에서는이날을당하야긔념식을 대대뎍으로 거행하고자하엿스나 경찰당국에서는 긔념식은 물론회원끼리만 모히겟다는것도 금지함으로 회원들은엇지할줄을 모르다가필경은 회원들이오후일곱시경에 회관에 모히여삼분동안 엄숙한묵념(默念)이잇섯다는데 종로 경찰서에서는사복경관이 림장하야 그것까지엄중경계하엿다더라

서울靑年會
경운동에서추도회

서울청년회에서는 이십일일 밤 여덟시부터시내경운동(慶雲洞)구십일번디에서 사십여인의 회원이모도혀『레닌』의추도회를여럿는데리뎡윤(李廷允)씨사회하에회는열리자박형병(朴衡秉)씨의 략력소개가잇섯고 뒤를이어홍순긔(洪淳起) 한신교(韓愼敎)등제씨의『레닌』에관한 감상담이잇슨후 열시반경에 산회되얏더라

北風會外三團
재동에서긔념식

북풍회(北風會) 해방운동사(解放運動社)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 청년운동사(青年運動社)의 련합『레닌』추도회는이십일일오후두시부터시내재동(齋洞)팔십사번디에서 열리엇섯는데 김약수(金若水)씨사회하에 신철(辛鐵)씨의추도사와 송봉우(宋奉瑀)씨의감상담、김평산(金平山)씨의 략력보고가잇슨후 회는 비경에엇난는데 식장 정면에는 『레닌』의초상을붉은빗조희에밧커거려노흔것이 보는이의 눈길을더하얏스며 회가맛나며 륙십여인의 회원은일제히 긔념로동(紀念勞働)을한후산회하얏다더라

紀念演說은禁止
돌연히경찰이

이상사개단데에서는계속하야작일오후칠시부터긔념연설회를개최할 예뎡으로 준비중이엿는데 돌연히경찰에게금지되엿다더라

勞働黨追悼
경운동그회관에서

시내경운동(慶雲洞)조선로동당(朝鮮勞働黨)에서도동일오후일곱시경에 회원이 회관에모히여추도회(追悼會)가잇섯다더라

櫟傷한八十翁
생명은구할듯

이십일일오후두시사십분경에시내남미창뎡(南米倉町)에서나히약팔십가량 되어보히는로인이 뎐차에치어서 인사불성에 싸졋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피해자는시내마포동(麻浦洞)리치순(李致順)(八〇)이라는로인이라는데 병신은될듯하나 생명은건질듯하다더라

歲暮氣分이濃厚한陰曆年末
◇적막한시가에도절긔분이돈다

벌서일월이십이일! 음력섯달스무여드렛날은되얏다 과세를두번식하는 조선사람에게는 또다시빗에졸리고 아이들에게 졸리는음력세해를맛게된것이다 아즉도구습에거저잇는 일반가뎡에서는구력을존중하는 습관을따라집 집이떡을친다 설보입을작만한다 한참밧분모양이며 북촌으로 드러서면 널뛰는 소리『모야』!소리가 밤깁허가는줄을 모르는모양이며 한산하든 거리에는생치와 굴비이며 도라지단을들고 밧부게왕래하는 녀하인들의발자최가 빈번하야젓고『포목뎐』『신가가』이며 동대문남대문 각시장에는다례거리와 과세할음식거리를 사려나아오는 시민들이 가득하야매우성황을이루엇고 종로일대의『조기』가가와『고무신』가가에서 파려내는청년도 작년음력섯달 금음에에못하지안타 하며『당긔』『주머니』『허리띄』등속을들고팔너다니는행상들도날로느러서제법세모의긔분이 농후하다(사진은설보입행상)

洪原에傳染病
환자칠명발생

함남홍원군룡원면동덕리、중동리(咸南洪原郡龍源面東德里、中洞里)두곳에서는 지난십삼일이래로 전념병환자(傳染病患者)

仁川署內 疑獄과
류모의절도는 련락관계가잇는듯

인천서(仁川署) 사법게청뎐(淸田)순사와중국인농회장(中國人農會長)·왕(王)모와결탁하야 범죄사실을 은익하고 큰뢰물을바든사건에 대하여는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후탐문한바에 의하면권리사건에 대한 소문이업마 권에인천서에대상(大秦)서장의귀에드러가자매상엇는곳그사실여부에대한 됴사를 진행중시내모양행(某洋行)의 약간직원의 양사(洋絲)절도사건에 대하야는 그양행고간직이 중국인류(劉)모를 톄포하야 지금까지엄중한 취됴를 계속중인데 권귀류모는 그양행의도나사건이 잇기는잇섯스나 자긔가절취한것은 아니요뎐히 누구의소위인지 모른다고부인하는터이라더라

日本議會와 暴力團의活動
보통선거와기타문데로 동경경시텽의특별경계

일본의데오십의회(第五十議會)는이십이일 개회될터인데 귀족원개혁(貴族院改革)의무교육비증액(義務敎育費增額)보선문데(普選問題)는중요문데가토의될터임으로 개회가되면 여러가지폭력단(暴力團)의활동도잇슬듯하고 또디방에서드러간 여러가지단데의단원이 만흠으로 경시텽에서는 이를주의하게보고 각부현경찰부(府縣警察部)와련락하여 극력상경단데의 행동을감시하는중이라더라(동경뎐보)

仁支主催 米實收懸賞
본월삼십일일부터지 / 본사인천지국에접수

【인천】본사 인천지국(本社仁川支局)에서모집하는 대정십삼년도 일본미실수고 현상투표는모집긔일이 박도함을따러서 각지로부터응모투표가 매일답지하는중인데 투표의 상황을보사하여보면너무나상상(想像)이상으로의외수를 추측하는편이 잇슴으로 본월이십일일부 본보경제란에 투표주의사항을 명요히긔재한바 일반은그참고를 만히주의함이 조흘것이며 긔간은본월말일부 우편일부인이잇는 투표엽서는 말일이후라도 본사인천지국에서 취급할터인바 희망하는이는하로밧비 투표함이 조켓다더라(인천)

被疑者의通譯
엇지될가의문

인천경찰서 수뢰사건의 주인공이된다는 청뎐(淸田)순사는인천에서 재근한지십년이상에 이르는사람으로서중국어에능란한사람이라 현재순사이외에도 경성디방법원인천지텽(仁川支廳)중국어강사 인천과학교(仁川某學校) 청년회 중국어과강사 인천에중국인에대한 여러가지사정에 정통한사람인바 원래부터 중국사람에게 너무친절히한다고별명까지듯던 터이라 그런데이번에 그런소문이낫다 이제이상스러운 일은전긔모양행고간직의 절도사건으로 말하면 청뎐순사와도 관계가잇는터에 그사건취됴에 역시청뎐 순사가통역을함에 이 사실을 짐작하는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이르키게되는바 금후로이사건이 엇지될던개것에대하여는일반이만흔흥미를 가지고기다린다 더라(인천)

仁川와 富豪脅迫事件
가택수색까지 / 범인은미구에잡힐듯

인천(仁川)시내부호를협박하던사건에 대하여는 이미루차 보도한바어니와 그후탐문한바에 의하면그 보한모녀가근은 방금인천 취됴중인데 태(太)모의커와함께 지난이십일에 모처에출동하야 가택수색과 기타됴사를 하엿는데 별는증거는 잡지못하엿스나 하여간 동사건의진범인은 수일이내에 톄포될듯한 자신이잇는 듯이추측되더라(인천)

橫死者가 被殺로判明
찔려죽어범인은아즉잡지못햇다

함남안변군위익면죽근리(咸南安邊郡衛益面竹根里)정원진(鄭元鎭)의집에서 지난달이십구일밤에제사를지내는데그이웃집에 일시주소를뎡하고광부업(鑛夫業)으로잇는평안도사람 리긔록(李基錄)(二七)이란자가 갓다가 술이취하야 안주를어더먹으려숙수방에들어갓다가 칼구에 넘어저 다리동맥을 찔니여그날에 무참히죽엇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이데다시 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긔리긔록이가 숙수방에 들어가 안주를청하즉 조곰기다리라고 주지안코 그만던지고 다시 청하매 리긔록이는 사고무친척한 사람임으로 사정업시다리를 찔넛는데 주인되는정원진은 주재소경관에게 거짓보고를 한것이라는데 안변경찰서(安邊警察署)에서는사실을밋지못하겟슴으로 형사가 출동하야현장을 검사한후주인 정원진외 사인을 취됴한결과 사실이 명백함으로 지난십이일에 그냥인치하고 아즉범인은 톄포치못하얏슴으로 그성명을 비밀에부친다더라(안변)

京城의 女子青年同盟
이십일일밤에 / 조선교육협회안에

계급의식에 각성된녀성으로 경성녀자청년동맹을 조직한다함은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의창립총회는 예뎡과가티 이십일일오후여섯시에시내수표뎡(水標町)조선교육협회(朝鮮敎育協會)안에서 사십여명의 녀성이모히어 개회를 하려할지음에 림장하엿든경관은강령(綱領)문데로말성을부리다가 마츰내 강령을압수하고일반에게 공개함을 금지한후 동여덟시경에야 겨우 개회를하고의장은허뎡숙(許貞淑)씨로피선되여순서를따라 회원 뎜명(點名)개회사(開會辭)래빈축사(來賓祝辭)등이잇슨후미리긔초하엿든규약을대개원안대로가결하고집행위원(執行委員)선거에들어가서 전형위원네사람을내여가지고 위원은전형위원에게 맛기고 우봉운(禹鳳雲)씨가등단하야 렬렬한축사를하든중에 림장한경관은중지를명령하야 할수업시단에서나리고 아래와 가튼사람의위원거보고가잇슨 다음에 각디에서온축뎐(祝電)을랑독하엿스며 기타사항은위원회에 일임하기로하고 동십시경에 폐회하엿는데 그동맹의 사무소는시내안국동(安國洞)일백륙십이번디라더라

◇執行委員 許貞淑 朱世竹 金亦伊 [illegible] 朴貞德 沈恩淑 金順淳

光州에 思想團體
十八會가誕生 / 십팔일회의발회식

전남광주(全南光州)에서는지난십팔일 오후네시에 당디로동공제회관(勞働共濟會館)안에서사상단데십팔회(十八會)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바 모든운동을조직뎍으로하라면 사상이 건전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며 또는사상을발휘하라면 사상단데가업서는 될수업다는 의미하에서 발회식을 거행하얏는데 인천무산청년동맹(仁川無産青年同盟)경성신흥청년동맹(京城新興靑年同盟)경성화요회(京城火曜會)로부터온 축뎐을랑독한후 강령과 임원은 다음과 갓다더라(광주)

◇綱領
一、우리는新社會를建設할鬪士의訓練과養成을期함
一、우리는大衆解放을目標로한階級的意識을促進하기를期함
◇任員
幹事 曹俊錫、蔣倫翰

車輦館火災

지난 십칠일새벽에 경의선차련관(車輦館)역전 가마니조합(叺組合)에서불이일어나 일시는매우 소동을 이르켯스나 다행히속시에진화 되얏는데 불난원인은동조합서긔김창원(金昌源)이가화로를 쇼지아니하고 집으로도라갓든바 그화로로부터 불이일어나그러케 된듯하다는데 손해는약 일천오백원이나 된다더라(차련관)

죽물을흐려먹으며 無産兒教育에專心
삼년동안농한긔를리용하야 무산아동사십명을무료교수

강원도강릉군 청덕면내곡리(江原道江陵郡城德面內谷里)에는 돈업고 배울데업는 아이사십여명이 벌서삼년을 농가의뎨일한유하다는 겨울마다 책보를씨고 외딴골목조고마한 움집으로 모혀드는데그 집은 그동리두산자사이에 이름난 장현풍(張鉉豐)씨의집이다 장씨은 원래가세가 빈한함으로 초가(草家)나마한간의집이잇든 것을 할수업시 그동리뒤산가에외로히 움집을짓고 늙은부모와 처자를거나리고 품파리를 하여가며 가진고생을 다하면서 구차한목숨을 근근히보존하야 사려가는 터에 장씨는비록 살림은 간구하나 그의마음은누구나존경하는터이라 그는늘 자긔의처지를생각하고그동리에 배우고자하는수만흔아이들을위하야 약삼년전에 자긔의 움집을 한간더건축하고 나제는 품파리를하고밤이되면배우지못하야 원한의마음을 가삼에 품은아이들을모아노코한푼의보수도 밧지안코 아츰저녁에멀건 죽물을어더먹으며 주린창자를 웅켜쥐여가면서 삼년동안을 하로가티 가르켜옴으로써 사십여명의학생은 장씨를친부모로알게되는 동시에 국문도모르든그들이 오늘에이르러서는 막대한효과를 엇게된 이사실을아는사람마다칭송이 자자하다더라

새벽을엿보는 어린鷄鳴團!
별떼와도가튼네소년

안주한울미테속삭여 안주성내(安州城內)에는아름다운소년을품은소년네명으로부터 조직한 계명단(鷄鳴團)이란 소년단데가 작년십월경에 생겻다 계명단이라 일홈한것은 장차올 어린 조선의새벽을 깨어잇다가 온세상에 알리어혁혁한 미래의 태양을 맛게하자는 의미에서나온것인데 이네소년은 우선가난한 주머니를 떨어 뜻을서로합하야 한책이 벌서 다수이며 또한회(讀)합도작조 잇서서 서로아름답고 도덥다운 미래를 니야기하면서 아조 자미스럽게 마치 깁흔한울 미테숨은 별떼와도가티 고요한 속에서그들의생을영작(營作)하며그들은 계명단의존재를 숨김으로 아는사람은 적으나숨으려는단원의 일홈을용서하기 바라면서적으면다음과갓다더라
李麗根、金鍊水、崔東化、李鶴麟(안주)

朴寡婦의特志
극빈자사십여호에 벼한말식을주엇다

전북정읍군룡북면화호리(全北井邑郡龍北面禾湖里)박과부월봉(朴寡婦月奉)(四〇)은동리극빈자사십삼명에게벼한말식을난호아주엇는데그동리에는수천석추수를밧는부호도만흐나이런일은처음이라하며 목비까지세웟다더라(화호)

怒號中에逃避한
소위대동단연사오태환 / 통영에서열린소위강연

경남통영(慶南統營)에 도소위시국대동단 선전강연대(時局大同團宣傳講演隊)가드러와서 얼골빗이 할수하도록 피만빨니인보텬교(普天教)도들을모아놋코지난십팔일 정오에당디 대화당봉래좌(蓬萊座)에서

독갑이노름

을시작하얏는데 아모사회자(司會者)도 업시엇던양복입은 자한명이 경관을압세우고 드러와서 연단에오르더니 나는시국대동단 집행위원오태환(時局大同團執行委員吳台煥)이요하고는 벽두에우리조선사람은독립(獨立)할실력이업스니 만약우리조선이 일본과합병을 아니하엿다면 조선사람은살수가 업섯슬것이니 무엇이니하고 짓거림으로 수일전부터김해(金海)김상철(金尙哲)이란자가와서 그강연회의 준비를하고잇다는 말을듯고 벼르고기다리던당디 청년들은 참다못하야방텽석에서 큰소리로

쓰러내리라 커놈죽이라

커놈들의 입은양복도 필경불상한동포들의 피를빨은것이니 두말말고 옷을벗기라하야장내에는살풍경(殺風景)이이러나자무어라고 짓거리던 오태환은경관의보호를바라 뒷문으로 도망하야버리고 방텽석에서 청년김두옥(金斗玉)군이뛰여나와연단에올나서서 보텬교도를향하야 그대들은 정신을차리라 이러한망령을보고도아즉반성(反省)이업다하면 그대들의 겨우살것만리남아잇는생명까지 그놈들에게 마자빼앗기고 말것이다 그대들은살라는가 죽으라는가하야 장내를 흥분케하매 보텬교도중에서는 나는룡역원의금전을 보텬교에 바친뒤로오직갑자년(甲子年)만바랏던것이 이달커달보내게되고 이제갑자년이 며칠이못남은이때라

거의랑망

을아니할수업는지경에 마츰서울서 손님이와서 이제는일이다되엇다는 연설을한다기로그러면그러치갑자년이그커 넘어갈수잇나하고 업는돈에 또빗을내여가며 오륙십리를쪼차와서 이러한망경을 당하고 보니 이제는 할수업는 모양인데 이뻐까지 속은것은다시 말할것도 업지만은 돈뷕원을엇지하여야 차즐고하야 통분히부르지지며 일반교도는 실색중실색(失色中失色)이되야 서로멀거니처다보고이구석저구석에서 수군수군하다가휘지뷔지헤여저버렷다더라

鐵拳雨下
다시는안그리겟다고사과해

청중(聽衆)으로부터엇더한박해(迫害)를 당할줄알고 짓것을중지(中止)하고경관의 보호를밧아뒤문(後門)으로도망질을 하여바린오태환(吳台煥)은 부도뎡(敷島町)어느일본인려관(日人旅館)에숨어잇든중에 김상호(金相灝)김두옥(金斗玉) 김동근(金同根)군외십여인의 청년들이 달려드러가서오태환의뺨과 눈등에 철권(鐵拳)을 내리면서 이놈아이러한망칙한행동을또계속(繼續)할터이냐하야일장풍파(一場風波)가이러낫는데주먹세례를바든오태환은 황황급급하야엇지할줄을모르고오즉하는말이『다시는 이런행동을아니하겟스니 한번만용서(容恕)하여달나』하는애걸이엇는데마츰내다수한경관의제재로그자는겨우도망하여다러나 진주(晉州)로 그질로곳자동차(自動車)로 도망하엿다더라(통영)

靈武驛 昇格決定
간이역이든것이 본역으로될모양

홍원령무시(洪原靈武市)는함남의 굴지하는 어국시장인데함경선개통시에 진재이후 예산관계로 원래본역으로 예뎡하엿던것을 림시간이역(簡易驛)으로되지 영등에따라 당거시간의 단축과 대합실(待合室)의협착으로일반승강객의 불편과 배소화물(小荷物)운송지데로손해가 젹지아니하엿슴으로 영무번영회(靈武繁榮會)에서는 본역으로승격식혀달나고

수천여명

의주민들은련도당국에 진정서를 데출하고교섭위원까지 파송하엿다함은 이미본보에 루차보도한바 어니와 당역장(當驛長) 천도일랑(川島一郎)씨는 부임이래로간이역에 제반설비의 불완전함을 자긔도 유감으로 생각하여 일반승강객과 디방주민에게 친절히 만반편리를도모하여주든중지난십구일 당역장천도씨는말하되텰도당국에서 영무역을

본역으로 승격하기로결

뎡되여 불원간에 선로(線路)두줄을더하여 네줄을 만들고대합실이며 사무동제반설비를 완전하게신건축하리라더라(령무)

全收穫을小作料로
地稅와運搬費도小作人에게 / 먹고살고자일년을애를쓰고 죄다빼앗기고죽을디경이다

충북청주군강서면현암리부호리근영(忠北淸州郡江西面玄岩里富豪李根永)(四三)은 동군사주면용뎡리(同郡四州面龍亭里)논이 에 이백사십여석밧는 토디가잇는데 지금으로부터 사오년전에 그토디를 매수할당시에는 권디주가 일백이십여석밧게 아니밧든것을 권리리근영이가 매수하는즉시로 감평을 올리여서

이백사십

여석을만드러 노핫는데 그동리에는 그동리의 사음(舍音)을두고 도조를 바듬으로 소작인은다만 사음의 집만갓다주면그만이든것임도불구하고 리디주는 십리나되는청주역(淸州驛)까지 운반을 식히고도 오히려부족하여서 청주역에서 덩봉역(丁峯驛)까지가는 차비라고 매석에

이십오전

식을밧고그디 하여도오히려 만족지 못함인지 결권일원두에 쳐가권이라고 오권식을 더바듬으로 일반소작인은원청이창련한듯금년과가티 심한한재(旱災)를당하야더욱이 건답(乾畓)이만킈로 유명한용뎡리부근에는 수확이 전무한토디도만흔데도 불구하고 혹시 수확이잇다고하여도 평년에 비교하면불과 절반도못되게되엿는데

그토디를

부치는소작인들은 타작마당에서 빈손만들고나서서밥숟갈을머죽을디경에이르는사람들이태반이나된다는데그소작인중에유명리김인수(金仁洙)라는사람은 열일곱말지기 토디에도조열넉섬과결권십십여원을물게되엿는데그토디에서소출된곡식도권부열넉섬밧게아니된다하며그동리리순칠(李順七)이라는사람은일곱말지기토디에도조

너섬서말

과결권십여원을 내여야할터인데 그토디의소출은불과 닷섬서말밧게 아니됨으로 도조도못다되고 결권도내지못하게 되엿슴은아니라 당장굶어죽게되엿다더라(청주)

貯金橫領犯은
그우편소배달부

김포군 오정면우편소(金浦郡梧亭面郵便所)에서동군월곳면(月串面)사긔 최복영(崔福永)씨에게로가는대금십이원칠십원을중간에서 횡령한혐의로 동우편소배달부 배영만(裵永萬)과 동군월곳면 군하리(郡下里)오선광(吳先光)을 김포경찰서(金浦警察署)에서인치 취됴하든중그간 엄밀히 됴사한결과 범인은배영만으로 판명되는동시에 혐의자로인치 되얏던 오선광(吳先光)씨는무사히 방면되엿다더라(김포)

海南에도
일인디주의무리 / 小作人怨聲

전남해남군 읍내(全南海南郡邑內)에사는뎡청여(丁淸汝)는자긔의소유토디가 업슴으로 동도 해남군읍내(同道海南郡邑內)에사는일본인 옥정부차랑(玉井富次郎)의소작에명맥을걸고사는데 세상이다아는 금년가튼한재로지은농사는

아홉마락

에소작료여덜섬한말을칙합으로법어나엇을 하다고 수차애걸한바 하로는불러다가 그논권부수확을옥정(玉井)디주집으로 벼혀오라함으로 뎡청여는분속(分束)함을보고 다벼혀다주엇더니옥정은소작료 여덜섬한섬두말만줌으로옥정디주의 무리함을분개하야 소관경찰서에호소하매경찰서에서는소작인

뎡청여에

게하는말이 이권일은 모든디가 나아가라함으로뎡청여는분개하야 도라왓다는데 이말을드른 디주옥정은 명예손상하엿다고즉시소작권까지빼아섯다더라(해남)

惡德地主河祐植
소작조합에들엇다고땅을 떼이고여러작인을위협중

경남진주군대곡면단목리(慶南晉州郡大谷面丹木里) 디주하우식(地主河祐植)은 자긔의 실혀하는소작조합(小作組合)에들어 소작운동을 한다는리유로그작인되는 동면 가정리(佳亭里)조덕조(曹德祚)씨의부친에 논(畓)닷말락을아모까닭업시뙤어서소작조합반대자에게 주고진주로동공제회(晉州勞働共濟會)간부와 권긔조합간부들의 환작(還作)교섭에대하야『자긔목이 떠러질지라도 환작할수는 업다』고느까지완강히 주장하면서악착스러히소작인의목숨을

뺏다십흥

한사실이잇는바 권긔하우식은 권긔와가튼리유로대정십이년십이월오일자긔소작인되는 권긔가정리 리면선(李勉善)의부친논삼두락을또뙤여서 역시소작조합 반대자인동면와룡리(臥龍里)성원봉(成元鳳)에게 주엇스나 권긔 리면선은 달리는직업을 어들수업고만일 그논을부치지못하면 자긔와 식구(食口)가 모다 굶어죽을참혹한디경임으로 권긔 하우식에게 수삼차 그사정을 말하고 환작을애원(哀願)하엿스나 권긔하우식은 종시환작하야주지아니할뿐아니라 할수업시 리면선은소작권보장을 진주경찰서와 주재소(駐在所)로진정하야 겨우반작(半作)식나누어부치게되엿슴으로 각각그해가을 추수(秋收)에 이르러서는 반분식 경작하얏는데그후추수(秋收)때에이르러권긔하우식은 그의 각소작인들의 경작한 토디를도라보고 다른디주가다아니 밧는 디세와 공과금을너어서과한한

소작료를

달리하게 리면선의부친논에대한소작료(小作料)를갓다주어도하우식은 그를밧지아니하고 권긔성원(成元)을 식혀서리면선을 업무방해(業務妨害)라는죄명을부처서 동면주재소와 진주경찰서에 고소까지하야 동경찰서와 및부산디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텽 검사국(檢事局)의 됴사를 바든결과 하우식의 무리함이 드러나 불긔소(不起訴)가되엿는데 하우식은 더욱악의를품고또다시 권긔성원들을 식혀서 리면선의 권긔리면선은 권긔논한말닷되지기에 대하야 농작한일도업시남모르게그논의벼(禾)를비여갓스니 그논의권수확물(全收穫物)되는벼석섬닷말을 바다달라는거짓말로 지난구일 부당리득반환(不當利得返還)청구소송을권긔지텽민사부에

데긔하는

동시에리면선의집가장집물까지 모조리 가차압(假差押)하야그러치아니하여도 궁춘생활에 헤매이는리면선의 가족을더욱 못살게굴엇아나라 동면와룡리 김경진(金?俊)의소작한논의 반분소작료닷섬외에 지세공과와 집(執)대등을계산하야아홉말을가저오지아니하면 소작권을떼여버리겟다고위협하며마침내아홉말을더밧고다른작인에게도디세공과와집중임으로 일반소작인의호원(呼怨)이만타하며 권긔소송의진행을일반이매우주목한다더라(진주)

서울구경을 하고십허서
소도적질하얏다

금월십구일 오후네시쯤하야 함남령부시에는 엇더한 촌사람이 소를끌고 수육판매업자 온창호(獸肉販賣業者溫昌浩)의집에 와서 소를사라고함으로 소갑시얼마나물으즉 소장사는 매우어물거리다가 십팔원을 내라함으로 온창호(溫昌浩)는 소를보매 현가 삼십원가량이나되는데 십팔원을내라하는것이의심이나서

주소성명

을물은즉또한어물거리다가 신포면갈평(新浦面葛坪)에산다함으로온창호(溫昌浩)는 소를사기위하야 여러사람을다려다가 위협하고 소십팔원을더하자한즉 소장사는 여러사람이 모혀드는것을 대단히실혀하나 잠시간 리명근(李明根)외칠팔명의 군중이 모혀의론하는중 마츰순행하는 순사에게발견되야 즉시로 인치취됴한결과련쥬시에서십이엿

가량되는

홍원군룡원면도룡리팔십구번디 김춘진(洪原郡龍源面都龍里八十九番地金春鎭)(三六)으로 판명되엿는데소도적한내용을듯건대지난십구일아츰에우연히 집문밧을 나선즉서울구경이●고십흔생각이불붓트시일어남으로림원봉(林元鳳)의 집문밧게 매여노흔것을 풀어가지고령부시에서팔고자한것이라더라(령부)

本局、光化門 電話不通
사십분동안 / 원인은긔계의고장

이십일일 오후다섯시로부터 약 사십분동안경성의뎐화(電話)는 본국(本局)에서광화문(光化門)으로통하는 줄이 통하지못하야 일반시민의 불편이 적지아니하엿는데 원인은 긔계의고장이더라

日人農民을打殺
범인은종적이아즉묘연

지난십륙일 오전세시반경에 문천군읍내(文川郡邑內)에서삼리쯤되는 운림면인흥리(雲林面仁興里)에서농업하는 일본인부뎐속일(富田速一)(六二)의집에는엇던자가침입하야부뎐을타살한후그의안해『가지』(六六)의얼골과가슴에중상을시키인후부엌에가서나무에불을지르고다라낫는데그집에서불이남으로부근주민이달려가서본즉부뎐은참살을당하얏슴으로즉시문천경찰서에급보하엿는데당서에서는즉시사법주임과형사가현장에급행하야검시한후원산안변 영흥고원(元山安邊永興高原)각경찰서에 통지하야범인을엄탐중이나아직도톄포치못하얏다는데이제그피해자의소행을들으면십수년전부터 그곳에와서농사를 짓는데 포학하기가짝이업서부근주민에게미움을만히밧든중임으로금번참살사건도혹여긔에긔인함인듯하다고추측하는모양이라더라(원산)

假舍音惡行
디주도모르게 / 작인들을다니며위협

전남광양군 진월면양덕리(全南光陽郡津月面陽德里)사는 조동환(曹桐煥)은 순텬황뎐면(順天黃田面) 부호박창서(朴彰緒)의사음을 도득코저 수년래진력중이나 박디주는조(曹)의 불량함을늣고 종시허락한 일이업섯는데 조동환은 불가튼욕심을익이지못하야 여러가지수단으로 계속중이더니박디주는집첫조흔사음을가려서 진월면선소리(津月面船所里) 최인수(崔仁守)를신용하야 모든일을 맷기고소작료(小作料)도최인수집에 바더맛기는데보관중(保管中)쌀에에실디사음최인수는모르게조(曹)가보관자가되여가지고 디주에게가서 아첨하다가 디주의게책망만드럿는데 또십삼년도(十三年度) 디세납긔를 당하야 가사음(假舍音)조동환(曹桐煥)이가디주도 모르게 제가자랍하엿는데 박디주는 다세령에 의지하야각군각면디세를일변자랍하는중동진월면디세도광양도사음(光陽都舍音)김성초(金聖初)의손을거치어전부모내요납부케됨으로김사음이최사음에게통지하엿더니최사음은그통지를맛고즉시집사음에게온즉가사음(假舍音)조씨가벌서와서자긔가바쳣다고디주에게는환부(還付)하여버렷슴으로최씨는 허무히 도라왓더니그후로부터조,가사음(曹,假舍音)은면내각소작인들을 협박하야디세를 주지아니하는 소작인은소작권을박탈하겟다고무수히공갈함으로각소작인은공황중에일이긔(一二期)디세를전부임시애납부하고도오히려사갈(蛇蝎)가티 무서워하야 소작권보장에노력하는중 디주의 악사음사용을원망하나 내용은 가사음소위라고하더라(광양)

휘파람

▲조선무산녀자의해방을부르지즈려고탄생하는조선녀자청년동맹(女子青年同盟)의창립총회가이십일일밤에열리엇섯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그회에서의사가진행하다가축사(祝辭)가 잇게되야우봉운(禹鳳雲)씨가단에올러축사를하든중▲붉은한말이 잇다하야 대화뎐(大和田) 본뎡고등계주임이정복순사를 차커중지를식히고거 하엿스나정복순사가맛침어덕을것는지라▲한참 차커다니는 통에중지식히려든축사는제물에거의웃이나게되엿다▲정복순사를져우차커다가 다—못나라는 축사를중지를식히매▲사회하든허뎡숙(許貞淑)씨가『식사는 권느중지요?일부중지여?』하고 무럿다▲심부름하는순사나으리가머뭇머뭇 하다가 도라서서『권누임닛가、일부임닛가』하고 주임에게물어서 며답하는것도 볼만하엿섯다▲중지、해산、동명뎡에는본뎡경찰서가전문가(專門家)라고구경하고잇든어느청년의말